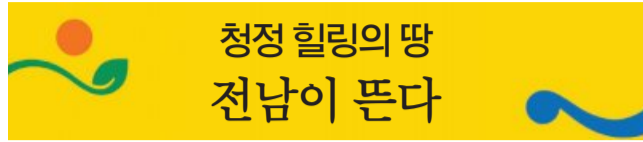


공짜·할인에 선물까지...알짜 여행상품 수두룩



<15> 알찬 전남 여행법

도내 22개 시·군 관광자원 연계
맞춤형 관광상품 잇따라 출시
전남 방문의 해 대대적 관광 마케팅

수도권 여행객 위한 '가족·친구 티켓'
4명 주중 호텔·렌터카 비용 무료

22개 시·군 '숙박할인 빅 이벤트' 진행
문화자원 체험할 수 있는 상품도 눈길
'SNS 인증샷 이벤트' 쏠쏠한 경품



담양 죽녹원에서는 호젓하게 가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2022-2023년은 전남 방문의 해다.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과 국내관광객 1억명을 유치, 국내 최고 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는 게 전남도 전략이다.
올해도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 전남도는 관광 산업 극대화를 위해 도내 22개 시·군의 독특한 관광자원과 연계해 맞춤형 관광상품을 내놓고 대대적 관광 마케팅에 나선 상태다.
울긋불긋 단풍이 절정에 달한 시기, 전남도가 내놓은 관광 마케팅을 잘 활용하면 일상을 벗어나 후회 없이 알찬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불거리, 먹을거리에 선물까지 챙길 수 있다.

◇가족 여행, 친구 둘 만의 알찬 여행을 꿈꾼다면=소규모로 차별화된 여행을 즐기려는 수도권 거주 여행객들을 위한 '가족·친구 티켓, 전남관광' 상품은 전남관광재단이 숙박·렌터카, 체험비를 일부 지원하고 코레일은 KTX 열차 운임 할인을 지원하는 열차 관광상품이다. 2명인 경우 20만5800원으로 KTX를 타고 순천까지 온 뒤 렌터카를 빌려 돌아다니다 고흥 선밸리리조트에서 허루를 묵고 KTX로 돌아가는 자유여행상품이다.
4명이 주중(일요일~목요일)에 해당 상품을 구입할 경우 호텔과 렌터카가 무료이며, 주말(금·토) 및 공휴일에는 호텔과 렌터카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여행객 4명이 이용하면 광양 이순신대교야경이 보이

는 호텔에서 머무를 수 있다.
현재 전라선과 호남선 등 2종의 상품이 출시됐으며, 다양한 관광·체험 콘텐츠 연계 상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2-4명이 KTX를 타고 순천으로 이동, 렌터카로 순천·여수를 돌아 순천·여수 호텔에서 묵고 돌아가는 '2박 3일 원패스' 상품도 이용이 가능하다. 레즈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국내 패키지 여행상품 코너에서 예약·구매가 가능하다.

◇숙박비 할인받아 전남 대표 먹거리 투어도 알차게=숙박비를 깎아주는 '숙박할인 빅 이벤트'는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방문의 해'를 맞아 진행중인 대표적 이벤트다.
체류형 관광지로의 변신을 위해 대부분의 시·군이 참여하는 만큼 할인받은 숙박비로 해당 지역 대표 먹거리를 '담'으로 즐긴다는 기분을 낼 수 있다.
광주·전남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여행객들이라면 10만원이 넘는 숙박료 중 4만원,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3만원, 7만원 미만 숙박료는 2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시·군 별로 1회만 가능하다.
시·군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한 호텔, 풀빌라펜션, 농어촌민박, 게스트하우스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그 곳에서 맛볼 수 있는 푸짐한남도 음식(찌)은 덤이다.

◇전남의 유네스코 유산 투어 해볼까=전남만의 특색있는 여행 코스를 원한다면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여행상품도 눈길을 줄 만하다.
전남에는 화순 고인돌 유적,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선암사·대흥사), 한국의 서원(장성 필암서원), 서남해안 갯벌 등의 세계문화유산 외에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강강술래, 판소리(서편제, 동편제), 아리랑, 농악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여행상품도 마련된 상태다.
화순고인돌유적과 맷돌 커피 체험, 순천만습지, 배알도 섬 정원 등을 둘러보는 유네스코 커피투어, 순천 선암사(다례체험)

와 광양 와인동굴, 순천 양조장 등을 도는 유네스코 알콜투어, 진도아리랑을 직접 부르고 녹음해보는 체험 코스를 포함한 유네스코 레코딩 투어, F1경주장 카트체험과 대흥사(공양·연꽃 등 만들기), 필암서원·죽녹원 등으로 이어지는 유네스코 연꽃투어, 신안 갯벌과 중도 소금박물관, 갯벌체험관 등을 포함한 유네스코 솔트 투어 등은 전남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오롯이 체험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이다.

◇꼭 가볼 여행지 둘러보고 기념 선물까지=전남도가 진행중인 'SNS 인증샷 이벤트'는 지역 특색 살린 '가파야 할 여행지'를 알뜰하게 둘러보고 덤으로 기념선물까지 쏠쏠하게 챙길 수 있다.
광주·전남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여행객이라면 전남지역 490개 주요 관광지 중 3곳 이상 찾아가 본인의 SNS에 인증샷과 필수 해시태그를 올린 뒤 응모페이지(구글폼)에 제출하면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경품은 '방문의 해' 기념 셔츠와 머그컵, 남도장터 모바일 상품권(2만원권) 중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다. 당첨자는 매일 둘째 주 남도여행길잡이 SNS를 통해 발표된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관광지로도 육성=관광취약계층이 전남 지역 관광지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경제적 어려움, 거동의 불편함을 이유로 여행이 어려웠던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 범위를 넓히고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이라면 여행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행상품은 당일 여행상품으로 15만 원 한도 내에서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경우 가족, 지인, 활동 보조인 등 동행인 여행경비 15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도내 여행사에서 유료 체험관광, 식사, 관광지를 포함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양 와인동굴은 색다른 와인 맛과 체험을 즐길 수 있다.



'SNS 인증샷 이벤트' 포스터



순천 선암사 일주문은 절 내에서 입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소실을 면한 유일한 건축물로, 최근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순천만 습지는 광활한 갯벌과 갈대밭으로 이뤄진 세계 자연의 '보고(寶庫)다.